

영화소개 - 히트맨



웹툰 작가가 된 전설의 암살요원 그의 히트 본능이 깨어난다!

- 주연: 권상우(준), 정준호(덕규), 황우슬혜(미나)
- 장르: 코미디, 액션
- 관람: 15세 관람가
- 개봉: 1월 22일
- 상영: 110분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방파연 출신 전설의 암살요원 '준'.

그러나 현실은 연재하는 작품마다 역대급 악플만 받을 뿐이다. 술김에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기밀을 그려버리고 예상치 않게 웹툰은 하루아침에 초대박이 나지만, 그로 인해 '준'은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깃이 되는데….



■ 이한권의 책 -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의사, 별이 되다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신경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였던 올리버 색스. 1985년 영국 현지 출간 아래 30년 넘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았으며 국내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표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증 환자부터 현실과 완전히 격리될 정도로 중증의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까지… 올리버 색스가 엄밀히 관찰하고 따뜻하게 써낸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임상 기록은, 인간 뇌에 관한 현대의학의 이해를 바꾸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의학적·문학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알마'에서는 올리버 색스의 타계 1주기를 맞아 글과 디자인을 세심히 다듬은 개정판을 마련했다. 누구보다 앞선 시선을 가졌던 작가의 목소리가 오늘의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자 올리버 색스는 193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대학 퀸스칼리지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와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1965년 뉴욕으로 옮겨가 이듬해부터 베스에이브리햄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후 알베르트아인슈타인의과대학과 뉴욕대학을 거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컬럼비아대학에서 신경정신과 임상 교수로 일했다. 2012년 록펠러대학이 탁월한 과학 저술가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상'을 수상했고, 모교인 옥스퍼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안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 향년 82세로 타계했다.

올리버 색스는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여러 환자들의 사연을 책으로 펴냈다. 인간의 뇌와 정신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려줘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문학적인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올리버 색스를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베스트셀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비롯해 『뮤지코필리아』 『환각』 『마음의 눈』 『목소리를 보았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 『깨어남』 『편두통』 등 10여 권이 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삶과 연구, 저술 등을 감동적으로 서술한 자서전 『온 더 무브』와 삶과 죽음을 담담한 어조로 통찰한 칼럼집 『고맙습니다』를 남겨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 저자_ 올리버 색스 • 그림_ 이정호 • 역자_ 조석현 • 구매가_ 18,500원

광주-전남 相生의 젖줄

영산강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합시다!

